

관련단체  
코너

1

River & Culture

# 우포늪 자연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 우포늪의 따오기자연학교를 소개합니다



이인식 | 우포늪 따오기  
자연학교 교장  
(woopolee@chol.com)

“우리의 ‘교과서’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며 태양, 나무, 꽃, 구름, 나비, 여러 가지 색깔과 소리 및 자연계의 갖가지 복잡한 음악”이라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았던가.

생태교육에 참가하는 아이들도 자연 속 생명들의 단순한 모양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흔들림과 풀 향기까지 감지하면서 꽃과 곤충들의 이름을 짓는다. 그 동안 막연히 아름다움 것으로만 느껴왔던 풀꽃들이 살아 있는 생명으로 가슴 속에 남게 될 터이다.



왕버들에서 아이들이 나무타기를 하며 즐거워합니다.



## 1. 들어가면서

지난 3월 12일 우포늪 세진마을에서 따오기자연학교가 개교했습니다. 11명 이내의 작은 주말 기숙학교가 열립니다. 스스로 사는 법과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학습하는 곳입니다. 입학식은 아이들이 밭을 일구어 씨를 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고, 교육과정 워크숍도 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할 내용을 토론했습니다.

자연학교는 복잡한 교육과정보다는 마을에 사는 어른들의 삶을 배우고 자연을 체험하면서 1박 2일을 보냅니다. 잠자는 방은 장작불을 때는 곳이기 때문에 근처 야산에서 간벌한 나무를 가져와서 직접 불을 지킵니다. 지난 몇 주는 불뎀 방에서 책도 읽고, 낮에 활동한 일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사랑채 방안에서 불을 끄고 모두 누워 담 넘어논에서 나는 개골개골 소리와 소쩍새 울음소리를 숨죽이며 듣기도 합니다. 지난 주 글쓴이의 기록장에는, “나는 주말 자연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 전인 금요일은 바빠. 그리

고 꿈을 꾸다. 청소도 하고, 미리 군불을 넣어 방을 데워 놓고, 즐겁게 수업에 참가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느라고 즐거운 꿈을 꾸니다.”

## 2. 꿈이 현실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1박 2일 동안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3년의 교단이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면, 지금의 꿈은 비록 주말의 짧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꿈은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꿈꾸어 왔던 자연에서 스스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연학교 2일째이자 부활절 아침입니다. 어제 밤 독서를 마치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가 알아서 ‘집 주변의 꽃을 관찰하기’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본인이 알아서 정하고, 관찰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녁 독서 시간에 사전 토론 학습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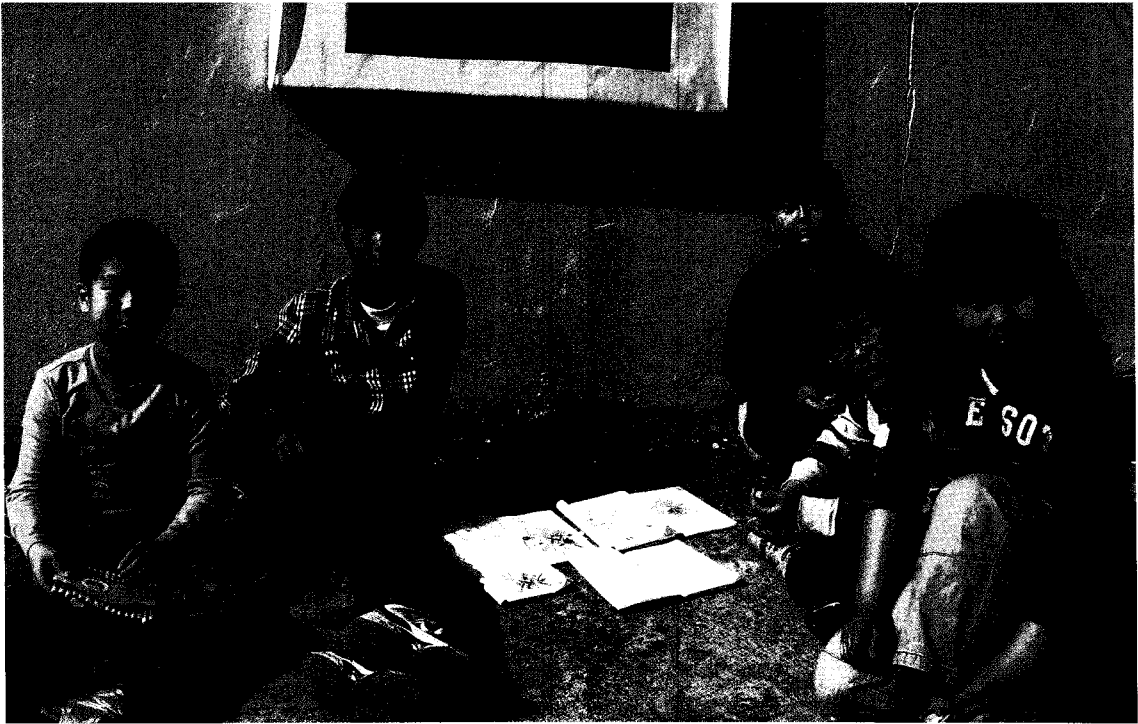
다음날 새벽 5시 40분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관찰학습



이 9시까지 진행되고, 기록은 글과 그림으로 남겨졌습니다. 결과는 이른 새벽부터 먼저 일어난 아이에 의해 서로 협력적으로 다양한 관찰 학습이 되었습니다. 교사는 다양한 관찰 기록을 보면서 칭찬하거나 좀 더 정밀하게 탐구하도록 돕는 보조자적 역할만 합니다.

아이들의 시작은 개별적 선택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 능력과 관계없이 서로 협력적이면서 다양한 특성을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표현조차 망설이던 아이들이 먼저 시작한 동무의 관찰방법을 모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가진 특성을 토대로 협력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러한 자연학습을 통해 야생동식물들은 상호 '투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협력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연선택은 대부분 다양한 생물 간에 협력적이어야 살아남을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특히 새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다양한 먹이 선택을 위하여 부리모양을 끊임없이 진화시켜 왔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자연학습 과정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적 학습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생을 배우는 것이 훨씬 사람다움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자연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자원 강사들이 함께 토론하고, 필



요하면 즉석에서 오늘의 날씨와 참가자들의 기분에 따라 번개 학습도 만듭니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프로그램이 변화무쌍해 지기도 하지요.

### 3. 에피소드 몇 가지

■ 봄이 활짝 웃고 있는 들과 산에는 갖가지 먹을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 자연학교에 참가한 아이들이 썩털이(썩백설기)와 화전을 만들기 위해 반죽도 하고 쌀가루와 잘 부벼 넣고 있습니다. 내일 자연학교는 썩도 뜯고, 민들레도 채취하여 봄 음식 만들기를 하는 날입니다. 화전도 하고, 찌지도 붙이고 봄나물로 비빔밥을 만들지요. 마을 식당에서 봄나물과 야채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학부모께서 강사가 됩니다.

■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시골 집 자연학교 담벼락에 그림

을 그리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 오늘은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오전에는 습지영어캠프 가이드로, 오후에는 따오기자연학교의 담벼락에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테리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한 동시를 써 주셨고, 자원교사인 미술선생님은 아이들을 지도하여 멋진 벽화를 남겼네요. 아이들은 그리는 재미에 푹 빠진 하루였습니다.

■ 아이들과 주말에 자연학교도 하지만 저는 매일 우포늪을 걸으면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 1박2일 자연학교를 마치고 다소 피곤했지만 우포늪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지포(모래벌) 제방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았던 큰고니들이 시베리아로 떠난 것입니다. 남은 녀석들은 큰키러기들과 오리류들이었습니다. 그림자에 남은 잔영처럼 잔잔한 아름다움이 가슴에 남아 이렇게 불러봅니다. “잘가! 가을에 또 와!! 새끼들 많이 데리고..”



낮에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스스로 학습한 아이들이 밤이 되면 독서삼매에 빠져 내일을 준비한다.

를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그 날까지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연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시작도 끝도 자원봉사를 통한 건강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어가도록 지원하는 곳이지요. 나아가서 지구촌 가족들이 평화롭고 야생동식물을 잘 보존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새들처럼 남북을 드나들고, 멀리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드나들며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

#### 4. 맺음말

따오기 자연학교는 이 땅에서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리'의 장본인인 따오기

자원교사로, 학생으로 자연학교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으로 연락 주세요. <woopolee@chol.com 혹은 010-4556-9009입니다.>



따오기자연학교에 2008년, 첫 손님으로 더운화기정의 아이들과 학부모를 초대하였다.